

하이델베르그 JGAS 2005에 워크플로 출품



하이델베르그사는 지난 10월4일에서 8일까지 일본 도쿄 빅 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JGAS 2005에서 신제품인 'XL105' 등의 워크플로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하이델베르그사는 신제품 XL105를 비롯해 기존의 전시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다섯 가지 워크플로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특히 6도에 코팅 유닛을 장착한 XL 105(6LX)는 시간당 1만 8천장의 속도에서 상업·패키징 인쇄 분야의 고품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10도 양면기인 SM102-10P 작업 시 선택 사양인 MCS 장치를 장착해 선진화된 코팅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 차이나프린트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디이커터 '밸리매트릭스 105 CS'가 전시돼 패키징 인쇄 분야의 차세대 새로운 솔루션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다이니폰스크린, 미래의 인쇄상 제시



다이니폰스크린은 10월4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의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JGAS 2005에 'Power to the Future'라는 모토 하에 인쇄 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최첨단 솔루션들을 선보여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JDF 대응 MIS 솔루션으로 인쇄 통합 운영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Trueflownet과 Trueflow3를 포함한 다양한 상업인쇄 워크플로 솔루션들을 선보였으며, CMS 및 패키징 관련 솔루션들도 선보였다. CTP장비로는 PlateRite2055Vi, PlateRite4300, PlateRite8800

II, PlateRite16000, PlateRite N2000 등을 전시했으며 새로 출시한 PlateRite8800II와 PlateRite N2000I 특히 주목을 받았다. 또한 TruePress 344, TruePressV200, TruePress Jet520의 최첨단 디지털 인쇄기들도 선보였다. 새롭게 출시한 TruePress Jet520은 선진 프리프레스 기술과 잉크젯 프린트 기술이 결합한 풀 컬러 디지털 인쇄 시스템으로서, 업손의 피에조DOD 잉크젯 헤드를 채용하여 잉크젯 방식의 장점인 고속인쇄와 저렴한 운영비를 실현했다. 아울러 다이니폰스크린의 최첨단의 솔루션들을 이용하여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서적 및 인쇄물들을 전시하여 참관객들에게 다이니폰스크린의 솔루션들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만로랜드, XXL 이벤트 성료

만로랜드가 지난 10월5일부터 8일까지 본사가 위치한 독일 아우그스부르크에서 개최된 XXL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만로랜드의 탁월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특대형 XXL 포맷 생산 시설 시찰뿐만 아니라 실제 가동하고 있는 고객사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더욱 유익한 자리가 됐다. 특히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특대형 매엽 오프셋 ROLAND 900 XXL은 포맷 시리즈 중 만로랜드가 대형 포맷 오프셋 인쇄기 제조과정에서 얻은 오랜 기간의 전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만로랜드 한 관계자는 "대형 포맷 인쇄 업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쇄 품질과 생산성을 고려함에 있어 이 기종을 선택했다"라며 "4 × 6 포맷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의 인쇄기를 표방하는 만큼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그파, 프린트05서 기대 이상의 성과 거둬

아그파는 북미 인쇄 시장 최대 전시회로 4년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프린트05에서 매우 성공, 기대이상의 판매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전시회를 참관한 인쇄업체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다른 경쟁업체들과 구별되는 아그파의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에 주목하고 설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아그파는 전했다. 이와 관련 스테판 반후렌, 그라피 사업부 대표가 "프린트05에서 나타난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관심도는 아그파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예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소감을 피력한 후 "아그파의 새로운 산업용 잉크젯 솔루션, 경영적인 측면, 워크플로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무현상 판재 기술 등이 참관인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 기간동안 아그파는 CTP, 소프트웨어, 대형 포맷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디지털 잉크젯 프레스 및 소모품을 포함하여 100대 이상의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의 납품계약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델베르그사, CD74 폴란드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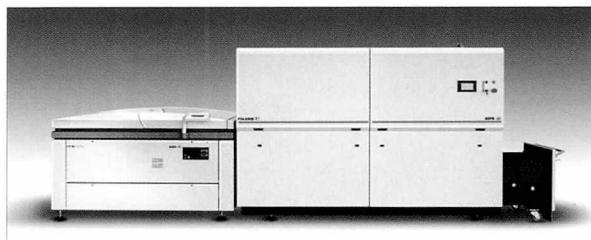
하이델베르그사가 제조, 공급하고 있는 'SM CD74' 듀오 인쇄기가 처음으로 폴란드에 진출할 전망이다.

폴란드 룸자-크라스카에 위치한 JDA 잔코스키(JDA Jankowski)사



에 내년 상반기 도입, 설치될 CD74 듀오 인쇄기는 0.03~0.8mm 두께에 이르는 종이, 필름, 혹은 카드 등의 다양한 인쇄용지를 지원한다. 이번 납품 건으로 잔코스키사는 비싼 재료나 여러 번의 인쇄를 거쳐야 가능했던 다양한 작업 공정을 한 번의 작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미로슬레이 JDA 잔코스키 사장은 “CD 74는 유연한 작업 공정을 통해 품질 수준을 최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종이다”라며 “작업 완료 시간이 짧고 인쇄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높은 생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프린트콘셉트사, 아그파 솔루션 계약



아그파는 최근 아일랜드의 웹프린트콘셉트(Webprint Concepts Ltd)사에 두 대의 폴라리스 CTP시스템과 월 3만판의 소모품 및 아키텍스 워크플로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내년 초에 가동될 예정이다.

웹프린트사는 최근 1주에 2백만부 이상이 발행되는 토마스코스비 홀딩(Thomas Crosbie Holdings)사의 14개 출판물을 15년간 인쇄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총 192페이지의 컬러 인쇄물 제작을 앞두고 있는 웹프린트사는 아그파의 시스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입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파의 CTP 시스템 설치 계약에 대해 배리 피터슨(Barry Peterson) 웹프린트사 생산담당 매니저는 “지금까지 아그파로 작업하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그파의 시스템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사용자의 요구를 항상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폴라리스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중 최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빠른 시간 내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그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소모품에 이르는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다”라고 말했다.

원데함프레스그룹, 아그파 워크플로 도입

영국에 소재한 원데함프레스그룹(Wyndeham Press Group)이 최근 아그파의 최신 워크플로인 아포지 X2.5를 주 제작 솔루션으로 도입했다. 원데함프레스그룹은 아그파의 프리프레스 시스템을 장기간 사용해 온 업체로 최근 그룹의 기술이사로 임명된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씨의 지휘 아래 원데함 헤론 공장에서 아포지X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거친 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브라운 이사는 “아포지 X2.5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관리 감독했다. 아포지 워크플로는 여러 군데의 생산 설비 시스템에 이중으로 인력이 소모되는 것을 줄여 그룹의 투자를 극대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포지X의 표준화는 그룹 전체를 통틀어 품질과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그파 영국 그래픽 시스템 사업부 로렌스 로버츠 이사는 “근래에 그룹에서 여러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업그레이드 한 것도 아포지X 솔루션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영국을 대표하는 상업 인쇄 그룹이 아그파의 워크플로 기술 선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델베르그사, 컷스타 1백번째 출고



하이델베르그사가 공급하고 있는 인쇄용지인 컷스타가 영국 케터링에 위치한 이클립스 컬러 인쇄사(Eclipse Colour Printing)에 100번째로 판매됐다. SM 102-12와 함께 사용될 예정인 컷스타의 가장 큰 장점은 컷오프 길이가 인쇄물에 맞춰질 수 있어 용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통의 특정 작업 부분에서 윤전 방식과 경쟁할 수 있다. Matthias Sieringhaus 하이델베르그사의 규격(70×100) 제품 담당자는 “컷스타는 여러 가지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릴 용지는 매업 용지를 사용할 때보다 더 경제적이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며 “컷오프 길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용지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릴과 싱글-웹 페이퍼를 이용한 인쇄 작업 시 저장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이델베르그사, 뉴스 253호 발간

하이델베르그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소식지인 하이델베르그 뉴스가 253번째 발간됐다.

253호는 ‘유혹의 기술’이라는 제목 아래 일반 상점에서 향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과 패키징 부분에 관한 설문조사를 주된 내용으로 다뤘다. 또 독일의 패키징 전문업체인 프로인트사가 ‘다이마트릭스106’ 다이-커터와 ‘다이아니 프로74’ 접착기를 이용해 후가공 부문에서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했다.

이밖에 SM 52 시리즈의 다양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인쇄 업체인 캐피탈 스펙트럼사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독일 볼프사가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 에어 컨디셔닝 기술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